

서울의료원 플러스+

발행인 김민기

편집인 김현숙

기획·편집 홍보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전화 02-2276-7000

홈페이지 www.seoulmc.or.kr

서울의료원, 7천여 사회복지인 '걷기대회'에 함께 참여

건강부스 설치해, 건강상담과 현장 의료지원 제공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4월 17일(금)에 남산 백범광장에서 개최되는 '2015년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및 일반시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70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셜워킹을 주제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함께 걸으며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사회

복지인을 주축으로 일반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복지 국내행사 중 최대규모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행사에서 건강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혈압, 당뇨, 체질량, 골다공증 등 검사와 건강상담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현장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시민의 병원으로서 사회복지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통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서울 구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평가서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 선정'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실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72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 여부와 전문인력 비율, 정기검사 시행 여부 등 18개 지표를 점검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지난 4월 9일 공개했다. 결과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종합점수 94.8점을 받아 전국 종합병원 평균 89.6점, 서울지역 평균 90.7점보다 높은 성적으로 혈액투석을 잘하는 병원에 선정됐다.

지표별 결과, 구조와 진료과정 및 결과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해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한편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은 대한신장학회가 선정한 2014년 투석환자 등록 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문인력과 최신 장비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30일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4월 30일(목) 외래부 4층 대강당에서 경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1분기 진료목표 및 실적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공의료 허브병원으로서 역할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관영 의무부원장은 경영설명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신축이전 이후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며 "올해도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2015년 제 1회 시민참여위원회 실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4월 28일(화) 의료원 임직원 및 시민참여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 1회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참여위원회는 △2015년 사업운영방향 △2014년 실적 및 2015년 목표 △2015년 사업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고 참여위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료원은 병원정책 운영, 공공보건의료 활동 및 방향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원 경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족하여 4차례 활동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불편사항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 지난해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18개 가량 개선조치 하였다. 유승원 총무부장은 "병원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력과 활동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발 사랑 Day'로 환자사랑 실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매주 수요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다수가 24시간 누워서 생활하기에 혈액순환 장애와 욕창에 시달리는 고통을 손쉽게 덜어줄 수 있는 발 마사지를 실시하게 되었다.

2개의 중환자실(내과계, 외과계)에서 총 3팀으로 구성되어 간호사가 직접 환우들의 발을 정성껏 마사지한 후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2015년 1분기 만족도 조사결과, 마사지를 받은 환자 모두 긍정적인 답변(매우만족 76%, 만족 24%)으로 응답했다. 강순원 특수간호팀장은 "발 마사지는 단순히 지압의 효과가 아니라 스킨십을 통해 환자와 마음까지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며 "발이 편하면 마음도 편안해져 환자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부, 부서단합 동영상 경진대회 실시

서울의료원 간호부(부장 이인덕)는 지난 3월 30일(월) 부서단합 동영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부서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각기 다른 주제를 담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병동, 인공신장실, 중앙공급실, 응급의료센터 등 총 14개 부서가 참가하여 간호직원 간에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만들었다.

동영상은 주제, 단결성, 작품성, 해학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6개 부서를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으로는 '언제나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동료들과 우애를 나타낸 응급의료센터가 선정되었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부서원의 단합과 동료들과의 끈끈한 동료애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부서원의 일치된 모습과 즐거운 부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많으면 뇌중풍도 늘어 ... 하지 마비 후유증은 보툴리눔 독소로 치료 가능

박희동 재활의학과장 [4월 15일 동아일보 게재]



황사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일상에서 최대한 미세먼지를 피하도록 하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의 불청객 황사도 함께 찾아왔다. 사막의 먼지바람인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도 악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3~5월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자료와 비교해보면 서울은 뉴욕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뇌중풍(뇌졸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 뉴욕대 랑곤 메디컬센터 연구팀은 미국 동부지역 시민 30여만 명에게 심혈관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우가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25%씩 늘 때마다 뇌중풍 사망자가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오염 물질이 몸속에 쌓여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혈압이 상승하고 혈류가 증가하면 기온 변화를 견디지 못한 혈전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증상으로 뇌중풍이 유발된다.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면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2003년 약 75%였던 뇌중풍 사망률이 2013년에는

50% 정도로 낮아졌다. 이는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골든타임 안에 필요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뇌중풍 후유증을 위한 재활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는 부족하다. 후유증을 가진 환자가 한 해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뇌중풍 후유증은 말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구음장애, 손발이 마비되는 상지장애, 신경병성 통증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 환자의 양상에 맞는 맞춤 재활치료가 요구된다. 그중 근육경직으로 하지 마비를 앓는 상지장애가 가장 흔하다. 근육경직 치료법에는 약물복용, 수술치료, 운동치료를 비롯한 여러 방법이 있다. 또 보툴리눔 독소를 특정 근육에 투여하는 재활치료법도 있다. 보툴리눔 독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의 단백질 산물로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경구용 약 복용이나 수술치료와 비교했을 때 특정 근육에만 영향을 주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됐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의 사용을 권고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메디톡신 등 국산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뇌중풍을 불러오는 미세먼지를 피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임신부 외식가이드



출처: 베스트베이비 5월호
도움말: 산부인과 한보령 과장

“임신 12주가 지나 입덧이 가라앉으면 식욕이 왕성해져 맛있는 것을 찾게 된다.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든 임신부의 선택은 바로 외식. 좀 더 건강하게 외식을 하려면 먼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메뉴인지와 쌀, 생강, 율무 등 임신부 금기 식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치킨,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과감하게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 칼로리가 높고 염분이 많아 다량 섭취하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지고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부 외식, 이정도만 주의하세요

육식 고기를 먹을 때는 살코기 위주로 먹고 샐러드나 깻잎, 상추, 김치 등 채소와 함께 먹는다. 임신 중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원.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경우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스테이크와 육회는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 우려가 있으므로 피한다.

면 요리 라면, 짜장면, 칼국수, 스파게티와 같은 면 종류 음식은 일주일에 2~3번 이상 먹으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끔씩 덜 먹는 것이 좋다. 라면은 되도록 안 먹는 것이 좋지만 참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면 라면 수프의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애호박이나 감자를 넣고 끓은 칼국수 등으로 대체할 것.

일식 임신 중 회 섭취는 신중해야 할 부분. 임신부가 날 생선을 섭취하면 식중독, 장염, 더 나아가서는 전신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산모와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증세가 심할 경우 조산의 우려까지 있다.

분식 분식을 먹는다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김밥을 선택한다. 또한 임신 중반에 들어서면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므로 우유, 계란, 치즈 등의 유제품을 먹어 보충하는 것이 좋으므로 치즈김밥이 굿 초이스.

매운 음식 임신 중기 이후에는 식욕이 돌아 매콤한 음식을 찾게 된다. 임신 중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태어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게 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단,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대부분 짠 맛이 도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고여 부종, 고혈압 등 질환이 생기기 쉽다.

‘편안한 산부인과’ 덕택에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탄생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 출산한 ‘전성예 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처로 이사온 후 첫째 아이를 서울의료원에서 출산하였는데 그때부터 줄곧 이용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덕분에 출산의 과정이 덜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가족처럼 대어주시는 직원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전성예(36)님은 지난 4월 14일 20시 55분 건강하게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첫째, 둘째 아이에 이어 셋째 아이까지 모두 서울의료원 산부인과를 이용하였으며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4월 23일 만난 전성예 님은 산부인과 직원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강조하며 다른 곳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깨끗한 시설 때문에 서울의료원에서의 출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예비엄마들을 위해 “부모의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체력이 뒷받침 돼야 아기를 키우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부모도 함께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말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원 산부인과는 가족분만실과 모자동실을 갖추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추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월의 싱그러움을 가진 서울의료원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121병동 김해리 간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입사하여 현재 호스피스병동인 121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 김해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들이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의 임종을 보았고 이를 간호하며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아 가끔은 출근하는 길이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자 그리고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저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게 부족한 점이 많아 동료와 선배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점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의 언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하는 친절함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지원팀 장우태 사무관리사



안녕하세요. 총무팀 고객지원실에서 고객 분들의 고충해결을 담당하는 장우태입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서울의료원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객의 어려움을 대하면서 이해 못하는 의문점이 들고 스트레스 또한 이겨내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고객 분들의 마인드와 고객니즈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입사한지 1년차로 각 부서 업무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차장님, 팀장님, 파트장님, 진료과장님들께서 배려와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덕분에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선배 분들의 아낌없는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저 또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며 신입 직원 때의 마음가짐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글을 통하여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제5대 병원장에 김현정 박사 취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지난 4월 22일(수) 병원대강당에서 제5대 김현정 병원장(이하 김현정 박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현정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공공병원의 꿈과 성장과 행복에 대한 소견을 밝히며, 직원들에게 마음껏 꿈꾸고 성장하고 행복할 것을 주문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로드맵은 없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늘어놓은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 꿈꾸고 로드맵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병원 로비에 모자이크 타일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전체를 이루듯이, 우리도 개인의 꿈들을 모아서 우리 조직의 꿈을 만들고 병원의 로드맵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꿈꾸고 성장합니다. 마음껏 행복합니다. 행복한 의사가, 행복한 간호사가, 행복한 직원들이야말로 행복한 환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비로소 병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정 박사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뉴욕 코넬대학교부속 특별수술병원에서 스포츠의학 펠로우를 거쳐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화이자제약 및 존슨앤드존슨메디컬에서 기업경력을 쌓았다.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 책에서 주장한 0차의료 개념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게시판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04.01 강은영 병동간호팀	04.01 김수민 병동간호팀	04.01 김은영 병동간호팀
04.01 류지선 병동간호팀	04.01 박경민 병동간호팀	04.01 오현정 병동간호팀
04.01 이고운 병동간호팀	04.01 이해인 특수간호팀	04.01 이현주 병동간호팀
04.01 임나정 병동간호팀	04.01 최혜민 병동간호팀	04.01 김석화 HPH팀
04.01 김은성 공공의료팀	04.01 노진선 시설관리팀	04.01 박희삼 총무팀
04.01 박지예 부설연구소	04.06 이영혜 식당	04.08 신두칠 시설관리팀
04.08 송은영 약제팀	04.13 이현우 치과	04.13 강성미 공공의료팀
04.13 이선희 보험심사팀	04.13 조경미 특수간호팀	04.13 신경순 병동간호팀
04.13 한혜숙 병동간호팀	04.17 서은미2 병동간호팀	04.17 안명숙 병동간호팀
04.20 송후남 응급센터	04.21 민영진 신경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04.01 박종구 시설관리팀	04.03 김나영 식당	04.06 박유니 병동간호팀
04.06 김유나 병동간호팀	04.06 조준행 총무팀	04.07 백경훈 병동간호팀
04.07 이영혜 식당	04.10 김은선 원무팀	04.12 하태수 병동간호팀
04.14 박은진 특수간호팀	04.17 최은혜2 응급센터	04.21 김보미2 외래간호팀
04.21 김선희1 병동간호팀	04.24 신윤선 진단검사의학과	04.24 안명숙 병동간호팀
04.24 김귀자 식당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4.11 양은재 특수간호팀	04.18 주병희 치과	04.26 김환용 영상의학과
-----------------	--------------	-----------------

학회 및 연수

기간	진료과	참석자	방문국	목적
04.11~04.20	외과	권유진	프랑스	9th Congress of vascular access society 포스터 발표
04.14~04.20	가정의학과	김무영	캐나다	35th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Canadian Geriatrics Society 포스터 발표

복부병원 소식

‘대사 증후군’예방하려면 ‘운동’하세요



서울특별시 복부병원 재활의학과 이주영 과장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대사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즉,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35인치 이상, 여성 33인치 이상의 비만, 혈압이 130/85mmHg 이상인 경우 대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갑작스런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사 증후군은 식습관 개선과 식사량 조절과 지속적인 체중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의 향상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운동 순서는 시작하기 전 10분간 준비운동으로 충분히 몸을 풀고,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진행한다. 준비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려 혈류량을 높여줘 몸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며 심장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탁구, 계단 오르기 등을 상대방과 대화 가능할 정도 혹은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등도의 강도로 일정 시간 이상 시행하는 것이 고강도로 짧게 운동하는 것보다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운동의 횟수는 주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권장되며 이는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조절을 요한다. 무엇보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초반에 시행하다 중단하는 것보다는 단 10분의 운동도 지속적 수행 시 큰 도움이 되므로 초반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유지하다 서서히 늘려가는 것도 좋다.

서울시 소식

중랑천 둔치를 따라 펼쳐지는 지역문화축제



장미공원인 수림대공원에서는 해마다 목2동 주민센터의 야외 결혼식이 펼쳐지기도 한다. 올해 5월 이곳에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가 펼쳐진다. 바로 ‘서울장미축제’다. 장미의 날, 연인의 날, 아내의 날 3일간 진행되는 축제는 로맨틱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 차 있다.

All THAT Rose 장미에 관한 모든 것을 판매하는 로즈마켓과 장미터널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연인들이 함께 즐기는 로즈&재즈 파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날 이벤트 등 새롭고 아름다운 축제로 기획되었다.

▶▶▶ 행사명 서울장미축제

▶▶▶ 기간

2015년 5월 29일(금) ~ 5월 31일(일)

▶▶▶ 장소

수림대공원(목동), 장미터널, 중화체육공원(태릉입구역, 먹골역, 중화역)

▶▶▶ 문의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02-2094-1835)

※ 중랑구청 홈페이지 서울장미축제 포털을 방문하시면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